



# 본회 김은성 회장 사임

- 수입녹용 취급 의심 인물과 녹용 거래, 도의적 책임지고 물러나 -

본회 김은성회장이 사임했다.

지난 9월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실시된 제 5차 이사회에서 본회 임원진은 김회장에게 사임을 건의, 김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자진 사임처리 됐다.

본회 임원진은 지난 6월경부터 김은성회장이 수입녹용을 거래한다는 소문이 지속되자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김회장은 지난해 9월경 업계에서 수입녹용 취급 업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로부터 녹용 1천3백냥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불법 수입녹용 문제로 물의가 있었던 유통인 B로부터도 3차례 녹용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A씨가 수입녹용을 취급하는지 확인키 위해 구입했으며 전량 국산으로 확인돼 식품회사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수입녹용 확인차 구매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회장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임원과 상의 후 처리했어야 하며 회장 명의로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소량만 구매 확인해 보았

어야 했다. 더불어 불법 수입녹용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B씨에게 녹용을 구입한 것도 온당치 못한 처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김회장이 녹용을 구입할 당시 협회 자회사인 양록사업단이 다량의 녹용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녹용 취급 의심자에게 녹용을 구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원진은 김회장에게 사임을 건의했으며 김회장은 이를 수용했다. 김회장은 "임원진의 뜻에 따라 사임하지만 수입녹용 확인차 구매했던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은 없다"며 회장 직무대행에 김수근부회장을 지명했다.

김회장 사임에 대해 본회 임원진은 "울곧은 협회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 표현하고 "회장 사임은 협회로서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더욱 쇠신하여 협회 본연의 활동에 더욱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수근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실시, 회장 보선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 소집 및 임사총회 임정 등 회

